



동아시아 어린이공연예술제 개막 공연 24일 광주문화관에서 시작된 '2008 동아시아 어린이공연예술제' 개막 공연에 참가한 6개국 250여명의 출연진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한국 민요 '아리랑'을 부르며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광주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오는 27일까지 광주문예회관 등에서 계속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방문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

“광주시 ‘창조 도시’ 합류 환영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성 협력”

“광주시가 ‘유네스코(UNESCO) 창조도시(Creative City)’ 대열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2008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공연예술제”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2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리 등 공평화 석지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그는 “아직 현장을 둘러보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후보지라고 생각한다”며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심사위원들의 현장 실사가 중요한 만큼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실사 관련 서류를 잘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쓰우라 사무총장은 “광주시가 창조도시 지정을 추진할 경우 특정 신청 부문에 대한 보강을 통해 창조도시 지정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시의 문화적인 장점을 분석한 뒤 강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쓰우라 사무총장은 이어 “광주가 추진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유네스코의 문화적 가치와 근접해 있어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하다”며 “광주가 문화 도시로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유네스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해남군과, 여수시, 화순군 등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공평화석지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마쓰우라 사무총장은 25일 헬기를 타고 해남 우항

은 후보지라고 생각한다”며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심사위원들의 현장 실사가 중요한 만큼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실사 관련 서류를 잘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광주항쟁 기념일인 5월18을 “세계 민주주의 날”로 지정해달라는 광주시의 제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세계적인 기념일은 UN과 유네스코가 각각 지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먼저 어떤 기관에 신청할 것인지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이치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08 유네스코 동아시아어린이공연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민주주의 전당 광주유치 박차

市·5·18단체, 오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방문 후보지 결정 방안 협의 광주 유치 청원서 제출

광주시와 5·18단체들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연석회의를 갖는 등 ‘한국민주주의전당’ 광주 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민주주의전당 광주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원)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경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방문해 민주전당 후보지 결정방안을 협의하고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유치추진위는 청원서를 통해 “광주는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20세기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도시이며 광주시와 시민들은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포부와 실행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실현 차원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방문해 민주전당 후보지 결정방안을 협의하고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홍·정수만 위원, 시 관계자 등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합세웅 이사장, 유영표 상임부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는 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대국민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갖는 등 민주전당 후보지 결정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국민주주의전당이 광주에 반드시 유치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민주주의전당’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상징하고 민주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설로, 1천400억원의 국비를 들여 11만5천㎡ 부지에 상설전시관, 사료관, 교육센터, 연구소 등을 건립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지하철 더 안전해진다

통합무선통신망 구축...통신체계 일원화

광주도시철도 1호선 2구간에 각종 재난 발생시 현장 지휘통신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 구축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철도 1호선에 구축돼 있는 열차 무선통신망을 국가통합통신망과 연동,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으로 구축해 이용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란 군·경찰·소방·응급의료·철도 등 재난관리 기관들이 각자 다른 무선통신망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일

원화한 현장 밀착형 시스템이다. 시는 국가통합통신망의 시스템 연동기관과 사업방식 등을 검토해 사전 점검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1호선 2구간 내 지하정거장 5곳에 차례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은 세계무역센터 테러와 대구 지하철 사고 등에서 나타난 무선통신망의 현장 장애능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소방방재청이 주관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북구 상장 희망 기업 컨설팅 지원 설명회

광주시 북구가 전국 최초로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23일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기업대표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는 코스닥 시장 상장 과정과 회계, 품질인증 등 기업 운영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다. 컨설팅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북구청 경제정책과(www.bukgu.gwangju.or.kr) 또는 광주테크노파크(www.gjtp.or.kr) 홈페이지에 접속, 신청하면 된다. 참여신청 기업은 서류 심사를 거쳐 다음달 10일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최고 300만원의 지원금과 함께 오는 12월 초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종형 기자 golee@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웅신
대학편입 김영웅에 맡겨라!
www.kimyoung.co.kr
매일 공개설명회 10시/2시/4시/6시
김영웅 대학편입학원

가볍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분원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방부모와 당산의 토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관내 행정기관을 위한 민원 업무 지원 센터
02-777-5200

광주·전남 가능장 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가발 최신제품 70만원
초슬림!!
귀마의 통풍과 안색을 높여주는 영리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02-777-5200